제3장

명대주자학과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대 주자학·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해당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관 학회(연구소)의 논문(KCI)을 중심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 26개, 유교학 4개, 인문학 4개, 중국어와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명대 주자학·양명학〉 주제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4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주제별로 구분하여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겠다.

2. 인물별 분류

1) 양명학(양명후학) 관련 논문(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박길수	왕양명의 심상 체인 이론의 특징과 의의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박길수	四句教의 四性論的 근거와 의의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박현정	양명후학의 격물관 비교: 양명학에서의 '해석 다양성'에 관하여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전체 18편의 논문 중에서 감천학파 논문 2편과 명말 강학운동 논문 1편 3편을 뺀 15편의 논문이 양명학(왕양명 사상, 양명후학, 양명학과 조선유학 비교, 양명학과 교육, 양명학 연구사) 논문으로 전체 편수의 83%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19년도 7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명·청대 중국유학 논문 중 양명학(양명후학) 비중이 2015년도 9편, 2016년도 12편, 2017년 21편, 2018년 17편, 2019년 18편이었다. 올해 편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명·청대 중국유학 연구는 여전히 양명학 관련 연구가 중심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

왕양명 사상을 통상 심즉리, 지행합일, 치양지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양명 만년 사상이 온축된 정화는 역시 치양지 세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김준승은 발도로프 교육론에 관심을 두고 최근 수년간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감정, 욕구, 체험을 중심으로 한 본 논문 역시 김준승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승은 이렇게 말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왕양명 사상의 정수인 치양지의 공부처를 심(心)에 두고 감정과 욕구, 그리고 경지〔自慊과

眞樂〕 체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왕양명의 공부론은 양지의 발현을 위해 도문학과 존덕성 그리고 존천리 거인욕을 공부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치양지에 대한 국내연구는 사욕을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 언급보다는 사욕 제거라는 항목에 함의되어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은 거인욕 할수록 치양지에 가까워지며, 결국 치양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사욕이다. 필자는 치양지를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사욕의 제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간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와 감정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며, 치양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가진다. 물론, 양지의 작용은 동시적이며, 직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편의상 구분이며, 왕양명의 언급을 통한 이러한 분석은 우리의 성장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기준해서 본다면, 왕양명의 공부론은 곧 감정과 욕구를 포함한 마음〔心〕 공부에 기준해서 볼 수 있으며, 그의 치양지론 역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체험과 실천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생활에서의 인간은 양지를 품부했기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적 존재이지만, 그 양지의 품부가 곧 치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치양지를 위해선 본인의 체험이 스스로 만족하는 체험〔自慊〕 혹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된 즐거운 체험〔眞樂〕이 필요하다."

김준승의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존처리, 거인욕' 공부야말로 양명학 정신의 본질임도 무시할 수 없다. 양명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김준승의 경우와 유사한 지점에서 애매한 포즈를 취하곤 한다.

용장오도는 양명이 37세에 깨달음을 얻는 사건으로 왕양명이 주

자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양명 심학으로 우뚝 서는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양명학의 성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명은 용장오도 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증험하는 차원에서 오경을 풀어본다. 그것이 『오경억설』이다. 후에 양명 생전에 소각되었고 극소수 몇 가지 조목들이 전해진다. 이우진은 선행논문에서 『오경억설』을 분석하면서 용장오도의 내용을 추적한 성과를 발표했었다. 본 논문은 『오경억설』 분석에 더해 용강서원 강학 등의 자료를 보충하여 용장오도의 내용을 추정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우진은 이렇게 말한다. "이 글은 '왕양명의 용장오도(龍場悟道)'가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실존적 결단에 의해 촉구된 해답'이라 전제하고, 용장오도 직후에 왕양명이 취한 일련의 사건들을 '성인으로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 구현된 모습들'로 규정하였다. 과연 용장이라는 한계상황에서 '양명학의 성인 즉 왕양명'은 어떻게 삶을 헤쳐나갔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용장오도 이후의 왕양명이 시행한 주요활동은 '『오경억설』의 저술, 원주민과의 관계개선, 용강서원에서의 교육활동'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오경억설』을 살펴보면, 왕양명의 소해(疏解)는 이제까지의 유학 전통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자적인 '심체(心體)와 심학(心學)에 입각한 소해 방식'이었다. 또한 『오경억설』의 소해에는 심즉리와 지행합일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원주민과의 관계 개선 부분을 살펴보았다. 왕양명은 '이상적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일'은 장소의 문제와 결코 결부되지 않는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왕양명은 중원(中原)의 사람들이 화려한 문명을 지녔지만 내외(內外)와 표리(表裏)가 부동(不同)하다는 점에서 비루하다고 여겼다. 반면 소박한 문명을 지녔지만 내외와 표리가 일치하는 용장의 원

주민들은 비루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는 용장의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본성의 선함과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용강서원(龍岡書院)의 교육활동을 살펴보았다. 왕양명은 교육기관의 목표가 '덕의 완성〔成德〕'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입지(立志), 근학(勤學), 개과(改過), 책선(責善)이라는 네 가지 교육의 조목인 '교조시용장제생(教條示龍場諸生)'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 왕양명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선(善)으로 이끌어 주는 관계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는 왕양명이 구상한 이상적 인간은 노불(老佛)이 말하는 자기 독존적인 선(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선(善)을 이루려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우진의 설명은 양명학 전반을 염두에 둔 서술이다. 용장오도의 계기와 내용에 집중한 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추후 용장오도의 본질과 성격에 집중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양명의 성인관 역시 많이 토론되는 주제이다. 송명이학 정신이 구성지학(求聖之學), 성인이 되는 학문에 있다고 할 때 주자학도 성인지학이요 양명학도 성인지학이다. 그렇다면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주자학의 성인지학과 양명학의 성인지학이 다른 점을 부각할 것인데,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주자학과 양명학 성인관 비교이다.

임홍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명의 성인관 또한 이전 학자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양명은 단순히 이전 학자들의 성인관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그 자신의 학술전개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인관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의 성인관은 정치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격동

의 시대인 명대 중기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것으로, 당시 사회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조가 문화와 학술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양명은 활발한 강학 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평등화, 학술 전파의 세속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인과 범인은 본디 한 몸'이므로 배움을 통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성인관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양명의 성인관은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후학들의 강학 활동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어 나갔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성인관과 그 공부론을 종합적으로 잘 서술했다. 다만 본 내용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내용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양명학과 노불의 관계는 상당히 지난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주자학자들이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노불과 유사하다는 공격을 즐겨했다. 사실 양명 자체에 친노불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유학 전공자들은 양명학을 유학의 테두리 내에서 독해하려고 하면서 노불과의 상관성을 가급적이면 두드러지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경룡은 이런 입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노불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양명학의 논지를 독해하려고 한다.

이경룡의 말이다. "왕양명(1472-1528)의 학술 인생은 48-49살에 양지와 치양지를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양분할 수 있다. 특히 49살 8월 통천암의 종일 토론은 학술과 교법에서 가장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43살에 제시한 입지공부에서 천리와 인욕의 이심론과 존양성찰 공부 및 본체의 지각을 설명하였다. 도교수양공부에서 불교의 심성론과 수양공부를 수용하여 전환하였다. 48-49살에는 심체를 직접 깨닫는

수양공부를 양지와 치양지를 주장하였다. 54살에 지행일체를 주장하고 55살에는 양지의 기능에 관하여 지각과 검증 및 선택 셋을 분명히 설명하여 종래의 양지 설명을 개선하였다. 왕양명은 30대에 허리 아픈 질병과 폐병 때문에 도교의 양생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웠다. 그는 당시 유행하였던 황정경과 「수진도(修眞圖)」를 참고하여 도교 의학의 양생 공부를 실행하여 질병을 어느 정도 고쳤다. 그는 35살 감옥에서 소강절의 희역(羲易)에 따라 처음으로 마음의 본체(先天翁)를 보는 신비체험을 경험하였고 37살 용장에서는 정좌하여 체용신화(體用神化)를 체험하였다. 두 번 체험은 소강절 운기법에 따르면 일양복래(一陽復來)를 체험한 것이다. 왕양명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39살부터 학생들에게 정좌시키고 정일(靜一)과 성의(誠意)공부를 가르쳤고 43살에는 불교와 도교를 참고하여 입지(立志)공부를 세웠다. 입지공부의 핵심은 천리와 인욕의 진망이심론(眞妄二心論)과 존양성찰공부이다. 마음에는 본체(천리)와 인욕(사욕 객기) 둘이 있고, 본체에는 지각, 검증, 사유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사욕도 검증 기능과 사유 기능 둘이 있다. 의념의 발원은 천리 본체와 인욕 둘이고, 존양성찰 공부는 의념의 발원을 지각하고 사유를 검증하고 사욕과 객기에서 발원한 의념을 지각하여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입지공부는 찰나의 일념(一念)을 지각하고 검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입지 구결은 당시에 널리 유행하였고 특히 왕기와 태주학파 안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왕양명은 48살 감주와 남창에서 강학하는 동안에 『대학』의 성의(誠意) 공부와 『중용』의 신독(愼獨)공부를 통일시키는 문제에 부딪혔다. 8월에 진구천이 찾아와서 육상산의 본심(本心)에 근거하여 심체를 깨닫기 위하여 직접적인 공부는 격물보다 치지가 우선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영명을 건의

하였다. 왕양명은 처음으로 영명의 지각이 찰나의 일념을 지각하는 양지라고 제시하고 치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양지 제시는 그동안 가르쳐 왔던 소강절 정좌법에 그치지 않고 43살 입지공부를 거쳐 교법을 바꾼 것이다. 8월에 진구천이 사상성찰(事上省察)을 건의하였고 왕양명은 사상마련의 치양지를 설명하고 현성양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상마련은 정좌공부와 함께 양명학의 중요한 수양공부가 되었다. 49살 6월에 진구천이 찾아왔을 때 의념(意)이 물상의 시비를 사유하고 양지가 의념이 사유하는 시비를 검증하고(是是非非) 존양하는(存善去欲) 주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여 양지의 검증과 존양 기능을 확정하였다. 8월보름 추석에는 통천암에서 여러 학생과 성의공부와 신독공부의 통일에 관하여 날마다 종일 토론을 벌였고 이때 학생들도 비로소 양지를 확신하고 기뻐하였다. 따라서 통천암 종일 토론은 양지를 확정한 것이고 왕양명 학술 인생을 양분하는 계기가 되었다. 50살 소흥부에 돌아온 뒤부터 양지를 강학하여 소흥부 집에 찾아온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54살에는 양지의 능지능작(能知能作) 역할에 근거하여 지행일체를 주장하였다. 55살에는 진망이심론을 수용하여 양지의 지각, 검증, 존양 세 기능을 정교하게 설명하였는데 49살의 양지 설명을 보충하고 완성하였다. 양지의 검증기능은 자증분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구양덕의 선병 사례에서 보이듯이 왕양명은 양지가 정좌에서 오는 선병(禪病)과 사려 분요를 치유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강조하여 정명도의 활연대공에 견주었다. 이것은 양명 후학에서 논의되었던 광경 타파의 답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지에는 심학의 임정종욕이라는 부정적 폐해도 치유하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년에는 학생들의 선병과 진헌장의 물망물조 공부의 유행을 본 뒤에 교법을 바꾸어 필유사언 공부와

집의 공부를 가르치고 집의 공부가 치양지 공부라고 평가하였다. 맹자의 집의 공부가 『대학』의 격치성정 공부보다 못하고 치양지 공부가 격치성정 공부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왕양명 만년의 수양공부 교판이다."

이경룡 논문은 근년에 조사한 양명학 사상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다. 양명철학 연구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가고 있다. 주요 논문 분석에서 다시 다루겠다.

문체와 어투를 가지고 필자의 사상을 읽어낸다는 것은 자못 주관성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박영희는 왕양명 문장의 특성을 통해 그 사상의 특성을 추적한다.

박영희는 이렇게 말한다. "王陽明의 글쓰기를 살펴보다 보면, 일반적인 대화나 흔히 보이는 문구 속에서 동일 리듬의 문형 나열이나 동어반복으로 성찰을 유도하는 수사법이 유독 눈에 띈다. 특히나 陽明學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확장하거나 선회하는 듯한 글쓰기로 사유를 이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글쓰기가 달라지고, 반대로 어떤 언어로 사유하느냐에 따라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생각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사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한다. 본고는 글쓰기가 곧 사유방식의 현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철학적 개념과 논리에 대한 고찰이 아닌, 글쓰기를 통해 사유방식의 특이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儒敎 사상가의 텍스트와 사유방식에 대해서 주로 철학적 논점과 내용 위주로 분석하거나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모두 본고의 수사법 측

면에서의 탐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내용 측면에서가 아니라 수사법을 통해서 그 사유 방식의 독특함과 타 사상가들과의 차별되는 지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처럼 철학적 개념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형과 용어 사용법을 통해 사유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철학적 문장의 의미 분석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수사법이 작동시키는 사유방식을 보고자 한다."

박영희의 접근법은 상당히 흥미롭다. 잘 활용한다면 철학적 개념과 논리 분석을 통해 파악한 어떤 결과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철학적 개념과 논리 분석을 통해 파악한 왕양명 사상의 틀을 설정한 후에 가능한 방법이라는 한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설정한 왕양명 사상의 유형에 따라 박영희 연구 방법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명대 학술 일반 논문(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찬	사상, 철학, 그리고 유학: 송명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경로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2	이진명	명대 초기 역사 순항을 위한 정통 개념의 재설정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임홍태	황도주의 주륙관 연구(2)	(사)율곡학회	율곡학연구
4	안광호	顧炎武의 저술에 나타나는 중국 邸報 관련 기록 분석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5	서연주	만명(晩明) 민가의 에로티시즘 구현 양상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송명유학 혹은 송명이학을 신유학이라고 부른다. 사상사 혹은 철학사를 구분하는 이런 방식과 용어는 과연 타당한가? 본 질문은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한 번쯤은 통과해야할 성찰의 구간이다.

이찬은 「사상, 철학, 그리고 유학: 송명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경로」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유학사상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할 때 '송명유학'이라는 명명은 그 용어가 관용적인 것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용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예컨대, 우리는 '유학'을 사상으로 이해해온 관성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는다. '유학'이 사상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태도는 '송명유학'을 '철학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데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명유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서 '유학'이 '사상'과 '철학'이라는 용어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그리고 '유학'을 이해할 때 이들 용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밝힌다. "특히 '송명유학'과 관련하여 '신유학(新儒學)'과 도학(道學)'이라는 용어는 이런 문제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용어들에 대한 논의는 송대 이후의 유학사를 사상사라는 역사학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 철학적 사유로 독해할 것인지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용어들을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하는 작업은 '사상사'와 '철학사', 그리고 철학과 유학의 경계를 확정하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유학'의 학문적 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송명유학'을 규정하는 데 있어 북송 시기의 사상적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자리매김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

명나라에서 조선의 세조와 비견되는 왕이 永樂帝 成祖다. 영락제는 명나라가 왕조로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잘 알려진 업적들을 소개하면, 鄭和가 명을 받아 대선단을 거느리고 서방과의 대외교류를 강화시켰고, 『永樂大典』을 편찬했고, 大運河를 정돈했으며, 수도를 北京으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켰다. 성조는 애초에 황제가 될 수 없었지만 靖難의 변을 일으켜 조카인 建文帝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변절자와 충절자들이 나왔는데, 方孝孺는 충절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후대에 방효유는 명대 도학 의리 정신의 표상으로 추앙된다.

이진명은 「명대 초기 역사 순항을 위한 정통 개념의 재설정」에서 방효유의 의리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필자는 방효유의 附統의 개념이 주희와 진량 사이를 중재했던 당중우의 의견과 일치함을 발견했다. 필자는 방효유가 이끌었던 金華朱子學派가 주자의 道德性命의 학술과 진량의 事功主義학술의 장점을 수용하여 절충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방효유의 정통론이 주희와 진량 사이에 일어났던 왕패·의리논쟁의 접점을 찾았다고 본다. 방효유의 정통론은 후대 丘濬(1420-1495)의 『世史正綱』, 謝陞(1547-1615)의 『正帝統』 등 저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황도주는 명말청초를 살았던 인물이다. 한국 학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임홍태는 「황도주의 주륙관 연구(2)」에서 황도주 사상을 설명한다. 임홍태는 인민대학에서 왕양명의 만년 교법인 사구교를 둘러싼 명대 사상계의 학술논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과 한국의 주자학·양명학 비교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임홍태는 황도주 학술의 특징을 이렇게 평가한다. "황도주는 정치

적으로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았으며, 학술적으로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사상적으로 상호 충돌하는 시기에 학술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런 이유로 황도주의 학문은 한편으로는 주자학적 경향을 보이면서도 일방적으로 주자학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명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자학과 양명학의 영향을 바탕으로 주륙동이 혹은 주왕동이 논쟁에 있어 그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조화시키려는 '회통주왕(會通朱王)'의 학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자와 양명에 대한 그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다. 반면 그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폐단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으니, 그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송유의 도통론과 양명 후학들의 무선무악설에 관한 것이었다.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양명학적인 입장에서 주자학을 비판한다든지,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하는 다소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그는 양자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극복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 한편으로 왕학 후학에 대해 첨예하게 비판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주의 시비로써 시비를 삼지 않는' 객관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황도주사상의 복잡성은 또한 명말청초 사상계가 지니고 있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안광호의 「顧炎武의 저술에 나타나는 중국 邸報 관련 기록 분석」과 서연주의 「만명(晩明) 민가의 에로티시즘 구현 양상」 두 편은 명대 사상사 이해의 배경이 되는 명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논문들이다.

안광호는 고염무의 저술에 기술된 저보를 다룬다. 저보를 조선에서는 朝報라고 칭했다. 안광호가 고염무를 선택한 이유를 소개한다. "고

염무는 淸代 유행한 考證學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空理空談에 빠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인의 글을 베껴 모아두었다가 책을 펴낸다'는 이른바 '抄書著作'의 방식으로 『日知錄』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문인들이 그의 저술을 모아 『顧亭林文集』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일지록』과 『고정림문집』에는 중국 邸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는 『일지록』과 『고정림문집』에 수록된 기록을 통하여 중국 저보에 대해 通史的으로 살펴보았다."

안광호는 고염무 저보 기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중국 역사 문헌에서 처음으로 저보의 출현을 알 수 있는 기록은 孫樵의 문집에 실려 있는 '讀開元雜報'라 할 수 있다. 이 '독개원잡보'의 雜報가 저보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 고염무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고염무는 『宋史』에 나오는 '劉奉世'傳, '呂溱'傳, '曹輔'傳에 나오는 기사를 통하여 宋代 저보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중에서 '유봉세'전은 송대의 저보가 唐代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염무의 기록에 대해, 고염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활동한 閻若璩는 『全唐詩話』의 내용을 통해 저보라는 용어가 唐代에도 사용되었음을 밝히었다. 또 고염무는 그의 外甥 徐元文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역사서 편찬에 저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고염무는 서원문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서간문을 보내면서 明代의 저보는 崇禎 11년 즉 1638년부터 활자화되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청대의 『實錄』 안에는 저보가 『明史』 편찬에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金瓶梅』와 『紅樓夢』 같은 소설 속에는 京師에서 인쇄된 저보가 지방 관청과 민간에 유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상사 연구자 중에는 만명 시기를 중국 근대의 맹아기로 종종 규

정한다. 명대 사상사 연구자 혹은 양명학 연구자들은 만명 시기의 근대적 특성인 개인 정감과 욕망 긍정의 경향 등이 양명학 유행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서연주의 「만명(晩明) 민가의 에로티시즘 구현 양상」은 개인 정감과 욕망 긍정의 세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다. "민가는 자체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만명 당시에는 상품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성애 풍조가 만연했으며, 명대 중기부터 세속화된 일부 문인층은 '眞詩在民間'설을 의식하기도 했다. 이에 민가는 기존 봉건 예교에서 중시하던 윤리 도덕적 잣대에서 한층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음란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나 표현들 역시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계층을 초월한 환영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명(晩明)은 사랑과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면모를 보이는 시기로 손꼽힌다. 명초 정주이학(程朱理學)이 관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철저하게 '금욕'이 강조되었지만, 명대 중기 이후부터 점차 욕망의 방종 또한 허용되면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에로티시즘(eroticism)을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많은 문인들 사이에서 욕망을 무절제하게 즐기는 것이 곧 풍류처럼 여겨졌고, 남녀의 성애를 담은 소설, 춘궁화, 섹스용품, 춘약 등이 범람한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만명 민가에도 에로티시즘이 구현되어 있다. 만명에 이르러 유행한 민가 가운데 약 800수가 풍몽룡(馮夢龍, 1575-1645)이 편찬한 『괘지아(掛枝兒)』와 『산가(山歌)』에 집중적으로 수록된 가운데, 풍몽룡이 당시 성애 소설로 유명한 『금병매(金瓶梅)』의 저자일 가능성이 거론된다거나, 그가 『수탑야사(綉榻野史)』의 판본을 교정한 일은 그의 민가집에도 농후한 에로티시즘의 색채가

묻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차후 풍몽룡은 『삼언(三言)』에서도 성애 문제를 적극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민가에 두드러지는 에로티시즘적 특성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성애 풍조에서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풍몽룡과 같은 출판 문화인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이들에게도 유의미한 존재였음을 방증한다. 민가의 경우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봉건 예교의 억압과는 별개로, 생활 속에서 '색(色)'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들과 그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 사유가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만명 민가에서 에로티시즘적인 요소는 『괘지아』, 『산가』의 경우 전체 787수의 작품 중 240수 가량 포착되며, 특히 『산가』 가운데 약 180수가 집중되어 있다. 이때 『괘지아』, 『산가』와 같은 민가집의 경우 민가 자체가 비교적 짧은 편폭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수록 작품 가운데 『괘지아』는 전체 416수 중 약 7수 가운데 1번 꼴, 『산가』 전체 371수 중 약 2수 가운데 1번꼴로 성애와 관련한 작품이 등장함으로 인해 여타 장르에 비해서도 독자들의 본능적인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인이 많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풍몽룡은 『산가』의 서문에서부터 자신이 수록한 민가가 모두 주변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정보(私情譜)'라 언급했을 뿐 아니라, 이들 작품이 공자(孔子)가 진정성을 인정했던 『시경(詩經)』 「위풍(衛風)」과 「정풍(鄭風)」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유행한 민가 작품은 기본적으로 '진시(眞詩)'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식자층이 향유했던 민가집에서도 기존 봉건 예교에서 중시하던 윤리 도덕적 잣대에서 한층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음란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나 표현들 역시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민가의 에로티시즘은 그 자체만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었

다. 민가 가운데 남녀의 성애와 관련한 작품의 경우는 주로 '사정(私情)'과 관련한 행위의 극히 일부로서 봉건 의식에 대한 저항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일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저변에는 풍몽룡이 『산가』의 서문을 통해 "남녀의 진정을 빌려 명교가 가짜 약임을 밝힌다면 그 공이 『괘지아』와 같으므로 괘지사를 수록하고 다음으로 산가를 언급한다.(若夫借男女之眞情, 發名教之偽藥, 其功於 掛枝兒等, 故錄掛枝詞而次及山歌.)"라 밝힌 것, 1900년대 초 중국에서 민가를 반봉건의 산물로 규정지어 문화와 사상 방면 혁신의 근거로 제시했던 것 등과 같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3) 주자학와 양명학 비교 논문(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찬	주희와 왕양명의 덕 윤리와 덕 인식론: 시비지심과 양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이찬은 하와이대학 철학과에서 로저 에임즈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로 서양철학과의 비교 또는 현대학술조류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동양철학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찬의 「주희와 왕양명의 덕 윤리와 덕 인식론: 시비지심과 양지를 중심으로」 역시 본인의 장점을 발휘한 논문이다. 이찬의 착안점은 이렇다. "사단 내에서 시비지심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시비지심이 지적인 덕성의 단초라는 표현은 그것을 '이성적인 판단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

나, 이런 접근은 이성과 감정의 분리라는 인간 정신의 근대적인 이해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맹자도 그랬거니와 주희와 왕양명이 경계했던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은 '합리적'임을 내세워 자칫 천착이나 사려와 계교로 사태를 뒤틀 수 있기 때문이다. 시비지심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지, '사단' 전체로 묶어서 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런 논의는 시비지심을 도덕적인 덕성과 지적인 덕성의 통일적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마음의 이런 총체성은 현대 서양 철학계에서 덕 윤리학과 덕 인식론이 소환되는 문맥에서 확인된다. 서양 근대의 지배적인 윤리학은 법률적인 계약 규범에 관한 것일 뿐, 더욱 나은 사람됨을 위한 논의를 소홀했다는 반성이 덕 윤리학을 불러냈다. 이런 성찰로 촉발된 덕 윤리학의 소환은 근대의 개체화된 인간관에 대한 성찰 및 윤리학의 본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와 연관 된다. 세계를 엄밀하게 탐구함으로써 과학에 토대를 제공하려는 근대의 인식론은 인식의 규범성을 선험의 영역에 남겨둔 채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는필연적으로 인식 활동의 규범성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렇게 획득된 인식의정당성을 평가할 때, 지적인 행위자와 공동체는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소가 된다. 요컨대, 인식론은 인식하는 주체의 내면과 세계의 관계성을, 윤리학은 더욱 나은 사람됨의 문제를 중시하게 되면서 '덕성'을 소환해낸 것이다. 세계와 자아를, 주관과 객관을, 이성과 감정을 구분해온 근대적 전통에 대한 반성으로 '덕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면, 마음〔心〕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시비지심을 이성의 이

름으로 분리해내기보다 융합적이면서 총체적인 특성으로 재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왕양명의 '양지' 개념에서 확인되듯이, 측은, 수오, 사양, 시비지심은 마음이 마주하는 구체적인 사태에 따라 다르게 발현 될 수밖에 없는 양태일 뿐이다. 그렇게 다르게 발현될 뿐인 순결한 마음에 몰입하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지적인 덕성과 도덕적인 덕성이 통일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4) 명대 유학과 조선 유학 비교 논문(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명심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김민재	다산의 '마음[心]' 개념에 나타난 도덕적 주체의 의미: 양명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3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이명심은 녹문 임성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임성주 관련 후속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명심은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양명과 녹문의 문제의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학자 공히 순선무악한 본심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도덕의 주체가 본성을 넘어 본심으로 확대되는 논리적 발전을 성취한 것이다. 따라서 양명학은 정주학의 내재적 심화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녹문 철학 또한 조선후기의 유학사상사가 심학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양명은 리기적 본체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리기론과 심성론의 유기적 정합성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하여 양명의 본의와는 달리, 후학

으로 갈수록 심 본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猖狂自恣〕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녹문은 본심과 본성의 존재근거로서 담일청허지기〔도덕적 호연지기〕를 제출함으로써 도덕에 대한 형이상학적 절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는 형이하자로서 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주 성리학자들의 뿌리 깊은 인식은, 녹문 철학에 대해 후학이 계승하기 어려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실학사상의 집대성자로 퇴계 이황, 율곡 이이와 더불어 조선시대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정약용 성론은 이른바 性嗜好說로 성을 기호의 측면에서 해설한다는 점이 많이 논의된다. 성리학 원리에 따르자면, 성은 소이연의 리로 형이상자인데, 기호라는 말은 형이하적인 기의 성격을 포함한 용어이기 때문에,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표현처럼 형용모순을 범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김민재는 하곡 정제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양윤리교육 측면에서 다수의 양명학을 포함한 동양철학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김민재는 「다산의 '마음〔心〕' 개념에 나타난 도덕적 주체의 의미: 양명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양명 사상과 비교론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다산 정약용의 마음 개념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사용한 '마음〔心〕'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통을 활용한 '책임 윤리'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산의 마음 개념을 양명(陽明)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산은 신형묘합(神形妙合)의 인간관을 견지하면서도 영명한 마음의 정신적 측면을 대단

히 강조하였는데, 판단과 선택의 자주지권(自主之

權, 權衡)을 갖추고 있는 이 마음으로 인해 인간은 여타 존재들과는 다른 '도덕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확보하게 되며, 바로 그 판단과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오롯이 자신이 안아야만 한다. ⓑ 둘째, 다산은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면서, 도심이야말로 인간에게 고유한 도덕적 경향성(도의의 본성, 영지의 기호)의 드러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도덕적 경향성은 상제(上帝)가 부여하는 것인 데다가, 도심도 상제의 후설(喉舌)로서 두 가지(도심-상제)가 별개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까닭에,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신뢰받고 있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 셋째, 도덕적 경향성과 도심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서, 도덕적 주체가 져야할 책임의 범위 설정에 있어 인간이 여타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嗜好]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조건 내지는 환경을 마련해 줄 정도의 책임은 있으나, 그 이상의 책임은 실용적으로는 요청될 수 있지만 당위적으로는 요청되기 어렵다."

이철승은 중국 근대 사상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교현대화 논의와 기철학 관련 논문 등을 발표해오고 있다. 이철승은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라는 논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왕부지와 정약용을 비교적으로 연구 고찰한다.

이철승은 왕부지와 정약용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한다. "왕부지와 정약용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다. 왕부지는 기선·리선(氣善·理善)의 관점이고, 정약용은 호선오악(好善惡惡)의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한다. 이는 기의 유선유악(有善有惡)과 리선(理善)에 근거한 성리학자들의 성선설과 구별된다. 왕부지와 정약용은 본성을 시공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날마다 구현해야 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4단에 대해, 성리학자들처럼 도덕감정의 영역에만 국한시키기지 않고, 도심(道心)에 해당하는 본성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왕부지와 정약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불선(不善)의 근거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한다. 정약용은 인심(人心)을 불선의 근거로 여기지만, 왕부지는 인심과 도심을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의 관계로 여기고, 제자리(位)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불선의 근거로 여긴다. 이는 왕부지가 생물학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것과 달리, 정약용은 도덕적인 영지(靈知)의 측면과 본능적인 형구(形軀)의 측면을 구별하며 영지의 기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곧 왕부지는 맹자의 천형(踐形)론에 근거하여 몸과 정신의 유기적인 결합의 관점에서 성선설을 펼쳤고, 정약용은 맹자의 대체(大體)와 소체(小體) 가운데 대체의 관점에서 성기호설을 펼쳤다. 이처럼 왕부지의 성선설은 생물학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통일시킨 면에서 본성의 범주를 확장했고, 정약용은 도덕적인 면만을 본성의 영역에 해당시킴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을 특화시켰다."

5) 경전 연구 논문(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주자학과 양명학 분화는 『대학』 해석을 두고 진행된다. 주자는 『대

학』의 격물치지 조목에 대한 보망장을 지어 卽物窮理로 『대학』 공부론의 기본을 제시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자의 즉물궁리 해석은 불교의 反觀內省 공부법에 대한 철학적 반박이다. 왕양명은 주자가 표방한 즉물궁리 공부법을 비판하면서 『대학』에서 誠意 공부를 중심에 둔다. 이성의 공부론이 후에는 치양지설로 확대 수렴된다. 윤휴는 송시열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었다.

최정묵은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에서 세 명의 인물들이 표방한 『대학』 해석을 제시한다. "주희가 『대학』에 대한 체계를 새롭게 구성한 후에 많은 학술적 논변이 일어났다. 「고본대학」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주희의 대학장구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문제이다. 왕양명, 윤휴, 정약용 등은 「고본대학」 자체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희의 작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의 문제는 강령의 개수에 대한 것이다. 주희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을 삼강령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두 개의 강령만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박세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지어지선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지어지선과 연계되는 조목이 없는 점을 들어 지어지선을 강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 이해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은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에 있다. 주희는 격물치지를 사물에 즉하여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그의 해석에는 두 가지의 지향점이 있다. 하나는 사물의 존재법칙을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법칙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왕수인은 주희가 격물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인식론이 아닌 수양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부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

이 誠意라고 보고 때문에, 격물치지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주희의 관점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휴는 격물을 두 가지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나는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방심을 수렴하고, 엄숙, 고요, 전일한 상태를 유지하여 본원의 밝음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살펴서 묻고, 정밀하게 생각하여 연구를 거듭하여 신화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첫 번째가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수양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 방법적인 측면을 말한 것이다. 다음으로 명덕에 대한 개념규정과 명명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주희와 왕수인의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윤휴나 정약용은 명덕을 효제의 마음이나, 효·제·자 자체로 이해하고 있어, '뭇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주희의 견해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친민의 해석에 있어서는 우선 주희는 정이천의 견해를 수용하여 신민설을 주장한다. 반면에 왕수인 백성에 대한 치자의 마음과 실천에 주목하여 친민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윤휴의 경우를 보면, 신민을 부정하고 친민을 옹호하였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지만, 내용을 확인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친민설을 지지하여 신민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친(親)자와 신(新)자가 외형적인 모습의 유사성만큼이나 의미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박길수는 「四句教의 四性論的 근거와 의의」 논문에서 과감하게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왕양명 최후 교법으로 평가받는 사구교와 『전습록』 하권의 黃省曾이 기록한 문답 중에 나오는 사성론을 서로 연결한 시도이다. 바로 "사성론의 관점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사구교의 제1구에 나오는 무선무악(無善無惡)과 제2구의 유선유악(有善有惡)은 각기 심의 본체와 작용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유선유악은 사실상 의(意)가 선악으로 분기될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3구의 지선지악(知善知惡)과 제4구의 위선거악(爲善去惡)은 도덕 본체의 연원과 말단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말단은 현실적인 선악으로 체현되는 유폐에서 위선거악의 격물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 공부의 근거는 제3구에서 제시한 양지라는 점을 잘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구교에 담긴 심론과 공부론이 사실상 성에 관한 왕양명의 네 가지 견해에 기초하여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사구교는 네 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구: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이다(無善無惡是心之體), 제2구: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의념의 발동이다(有善有惡是意之動), 제3구: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이다(知善知惡是良知), 제4구: 선을 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격물이다. 사성론은 네 가지 성으로 구분된다. 제1성: 본체에서 말한 성〔自本體上說者〕으로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無善無惡的〕, 발용에서 말한 성〔有自發用上說者〕으로 선도 되고 불선도 되는 것〔可以爲善可以爲不善的〕, 원두에서 말한 성〔有自源頭上說者〕으로 맹자가 말한 성〔孟子說性〕 곧 성선, 유폐(말단)에서 말한 성〔有自流弊處說〕으로 선이

되거나 악이 된 것〔一定善一定惡的〕 곧 순자의 성악〔荀子性惡〕이다.

제1구와 제1성, 제2구와 제2성은 대응이 용이하다. 그러나 제3구와 제3성, 제4구와 제4성은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박길수도 이를 시인한다.

먼저 제3구와 제3성에 관한 박길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사성론과 사구교의 3구들은 각기 '성지원두시성선(性之源頭是性善)'와 '지선지악시양지(知善知惡是良知)'로 되어 있다. 일견 두 구절은 표현상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 의미는 동일하다. …또한 왕양명은 육징(陸澄)이 양지를 심의 본체로 규정하고 성선으로 간주하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면서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지(知)은 좋지 않음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는 성선이 양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본심이 인간의 기질에 갖춰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성선이 양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양지와 성선을 연결 지으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박길수가 인용한 것처럼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지(知)은 좋지 않음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왕양명은 양지를 천리명각이라고 한다. 천리명각은 천리 본체와 명각 작용을 연결한 용어로 恒照하는 양지를 규정한 말이다. 그래서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지(知)은 좋지 않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길수가 원두처에서 논한 맹자의 성선을 통해 제3구에 나오는 양지의 의의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어서 제4구와 제4성에 관한 박길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사성론과 사구교의 제4구들의 내용도 형식상 표현은 다르지만, 각기 공부의 근거와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표리관계에 있다. 사성론의 '일정선

악(一定善惡)'은 유폐 차원에서 드러난 성의 모습이고, 사구교의 위선거악(爲善去惡)은 이미 현실화된 선악의 차원에서 실천하는 격물 공부이다. 특히 사성론의 일정선악은 위선거악의 격물 공부의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길수가 사구교와 사성론을 연결 짓는 시도는 논문의 각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선행연구(任文利 저, 『心學的形上學問題探本』,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5)를 비판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성론이라고 평가한 『전습록』 원문을 분석해보면 본체와 발용, 원두와 유폐라는 두 개의 조합을 중심으로 논한 글이지, 네 개의 성을 개별적으로 설정한 논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구교는 많은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대학』 조목과 연관성이 높다. 심즉리설은 주자의 즉물궁리적 『대학』 해석 비판이다. 「고본대학」 제창은 성의설의 경전적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치양지설은 치지 조목을 통해 성의설을 보완하는 이론적 성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구교는 『대학』의 4조목인 물(物: 격물), 지(知: 치지), 의(意: 성의), 심(心: 정심)을 종합한 왕양명의 최후 교법이다. 만약 기존의 선행연구와 박길수의 관점을 비교한다면, 박길수의 본 논문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왕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으니, 박길수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주력한 나머지 『전습록』의 맥락을 충분히 고찰하지 않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먼저 왕양명은 생지위성이 무선무악(無善無惡)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무선무악의 개념이 일차적으로 도덕성보다 생명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하지만 고자의 문제점은 생지위성을 본성과 사물의 감응 현상에 일관되게

관철시키지 못한 데 있다. 다시 말해 고자는 성의 본질이 선악을 초월한다는 점에만 집착하여 선악이 발생하는 기원은 전적으로 외부 사물에 귀속시키는 모순을 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양명의 관점에서 이것은 결국 사물과 감응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을 내외(內外)로 분리한 것이다. 실제로 선악의 원인을 오직 외부 사물의 영역에만 국한시킬 경우 결국 성은 선악 및 그에 따른 도덕적 의무와 무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왕양명은 언제나 성의 본체는 단일하지만 그 작용은 주객을 관통한다고 강조하였다. 간단히 말해 왕양명의 성론에서 선악의 발생은 본래 성의 활동의 산물이다." 이 글은 왕양명이 논한 고자 부동심 원문의 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역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전개하는데 치중하면서 발생한 매끄럽지 않은 원문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송명이학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철학사 관점 중에 풍우란은 정명도와 정이천 형제를 그 갈림으로 본다. 정이천을 계승한 주자, 정명도를 계승한 왕양명 식이다. 이명심은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理氣一物의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송명이학의 갈래를 두 계통으로 나눈다. "유·불·도를 포괄하는 동양철학의 종지는 천인합일 내지 만물일체를 구현함에 있다. 그런데 유학사상사를 개괄해보면, '인간과 천지만물이 하나가 됨'을 체현하는 방법론에서 性命철학과 生命철학의 두 줄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주학은 성명철학에 소속되고, 양명학은 생명철학에 소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양명과 녹문은 공히 인간의 본성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도덕'으로 규정하는 정주학과 변별되는 지점은 바로 '生意'의 강조에 있는 것이다." 성명철학은 정주학으로, 생명철학은 명도와 양명

학으로 구분한다. 이는 풍우란의 도식을 차용한 것이다. 성명철학과 생명철학 구분 도식은 크게 보면 그럴 듯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금방 이론적 장벽을 만나게 된다. 바로 '그렇다면 성명철학은 생명철학이 아니라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주자철학은 생명철학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 비판은 박길수의 다음 입장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 이면에는 생명에 대한 독특한 자각과 긍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는 주자학과 달리 성의 본질과 특징을 생명의 총체성이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규정한다. 이 때문에 그는 고자(告子)의 '생지위성(生之謂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왕양명은 생지위성이 무선무악(無善無惡)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무선무악의 개념이 일차적으로 도덕성보다 생명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양명학의 정신이 存天理去人欲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무선무악의 개념이 일차적으로 도덕성보다 생명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는 평가는 역시 지나친 감이 있다.

4. 평가와 전망

총14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양명학(양명심학과의 비교 등) 관련 연구가 비중이 가장 높다. 본 보고서(명청대 유학사)를 작성하기 시작한 15년도부터(14년 발표 논문 기준) 왕양명에 대한 연구는 늘 수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명·청대 유학 관련 논문으로 20년도 18편, 19년도 24편, 18년도 17편, 17년도 26편이었고, 올해 명대 유학사(주자학 양명학 분야) 총 14편 중에서 양명학(심학)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